



▶ 2007. 1. 15 배포
▶ 총 8 쪽

보도자료

▶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 박성희
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권구형 사무관
▶ ☎ 507~6267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사회적일자리, 올해 12,000명 규모로 확대

- 노동부,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

- 독거노인·장애인 등에게 간병 또는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올해 12,000명으로 확대된다.
- 노동부는 15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사업규모를 지난해 6,000명에서 올해 12,000명으로 2배 늘렸다고 밝혔다.
-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'03년 2,000명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'04년 3,000명, '05년 3,910명, '06년 6,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, 올해 12,000명은 제도 도입 첫해와 비교할 경우 6배나 늘어난 규모이다.
 - 사업예산도 '03년 73억, '04년 187억, '05년 258억, '06년 517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으며, 올해도 1,215억 원으로 첫 해에 비해 16.6배나 증가 하였다.
-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(NGO)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여성,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·취약계층에게 간병과 가사,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.

- 노동부는 올해 지난해 시범 도입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과 NGO가 연계한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(고용지원센터)에 신청하여야 된다.
- 한편,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(고용지원센터)에서 구직등록 시 참여를 희망하거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(www.molab.go.kr)를 참조하거나, 노동부 고용지원센터(1588-1919)에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1. 2007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

2.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(사례)

<참고 1> 2007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

□ 사업개요

-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·사회복지·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
 -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

□ 2007년 사회적일자리 창출 인원

- 총 12,000명
- 사업유형별 인원
 - NGO 단독형 3,700명, 광역형 1,000명, 기업연계형 3,600명, 사회적기업 지원 700명, 공모형 3,000명

<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 >

- (1) NGO 단독형 사업 :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
 - ※ 2007년은 '06년 '자립지향형 사업'을 'NGO 단독형'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2006년까지 제공된 공익형 사업은 금년부터 폐지됨
- (2) 기업연계형 사업 : 비영리단체-기업-지자체 등이 인적·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
- (3) 광역형 사업 :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
- (4) 사회적기업 사업 :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지원('07.7.1부터)
- (5) 공모형 사업 : 사회서비스의 공급 필요성은 높으나 정부재정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부처 등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발굴·제공('07.3월 이후)

<참고 2>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모범사례

1. NGO-기업 및 NGO-기업-지자체 연계 모델

① 「간병」 사업 모델 : 실업극복국민재단 - 교보생명

- 실업극복국민재단이 교보생명과 협약을 맺어 간병봉사단 운영
 - 교보생명은 재정·경영 지원,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사업 시행 및 관리 (전국 7개 지역 실시)
 - 노동부는 인건비 일부 지원 (사회적일자리 예산)
- 빈곤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간병도우미로 교육·고용
 -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
 - ※ '05년 총 수혜자 25,192명 중 수급권자는 86.6%
- 향후 무료서비스 외에 저렴형, 유료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복합 간병서비스 모델」로 전환하여 수익성 제고 예정
 - 노인수발보험 가입자 등 틈새시장에 대한 유료 모델 개발
 - 참여자당 2년간의 임금지원 후 유료 간병인으로 독립

② 「결식이웃 도시락공급」 사업모델 : 실업극복국민재단 - SK텔레콤 - 지자체

-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중구청, SK텔레콤과 연계하여 운영
 - SK는 사업모델을 기획하고 급식센터시설(160백만원) 및 운영비 지원
 -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사업 공동추진, 지역별 NGO는 급식센터 위탁 운영
 -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급식비(3천원)과 사회적일자리 지원(1인당 월 70만원)을 동 사업비로 활용
- 구청의 체육행사 등 대형 행사시 도시락 판매사업 운영

- 실업극복 국민재단에서 사업 운영 (추후 독립법인 설립예정)

2. NGO 단독 모델

① 「출산 도우미」 사업 모델 : 인천 서해주민센터

-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('05년 13백만원 지원) 지원을 통해, 여성 실직자를 산모도우미로 교육·파견
 - ※ '05년 15명의 산모도우미가 98명의 저소득 출산모 등에 서비스 제공
- 수혜대상 소득별로 서비스 이용료 차등 적용
 -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 ('05년 제공된 총 서비스 중 무료형 비중은 31%, 나머지는 69%는 저렴한형)
 - ※ '05년 총매출은 18백만원, 이를 시중가격으로 환산하면 62백만원

② 「간병·가사지원」 사업 모델 : 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

- 전국 7개 지역 생협을 연합하여 「재가케어복지 사업단」 구성
 - 독거노인, 장애인,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간병·가사지원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(노동부 '05년 647백만원 지원)
 -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는 77명이며 이중 70%가 취업 취약계층, 수혜자는 월평균 300~400명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부는 무료, 저소득층 및 일반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
 - ※ '05년 총매출액은 약 49백만원이며, 유료 서비스 대상자는 총642명

③ 「방과후 교실」 사업 모델 : 안양 세종장애아동후원회

-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예산 지원을 받아 장애아동 방과 후 지도, 장애아동 통학차량 운행 등 장애인에 대한 틈새 서

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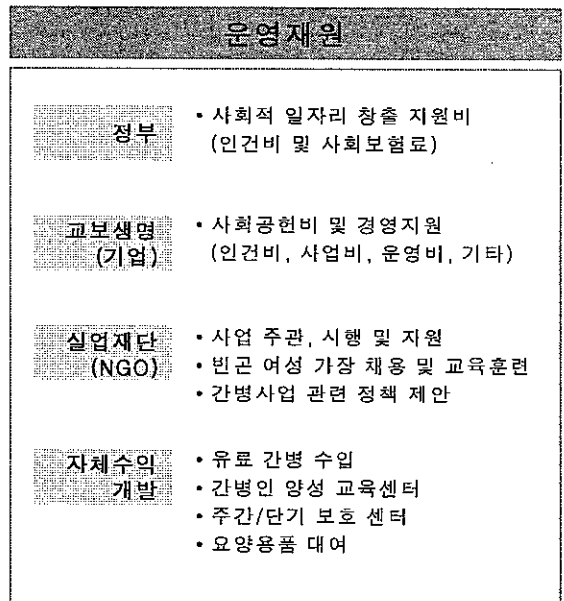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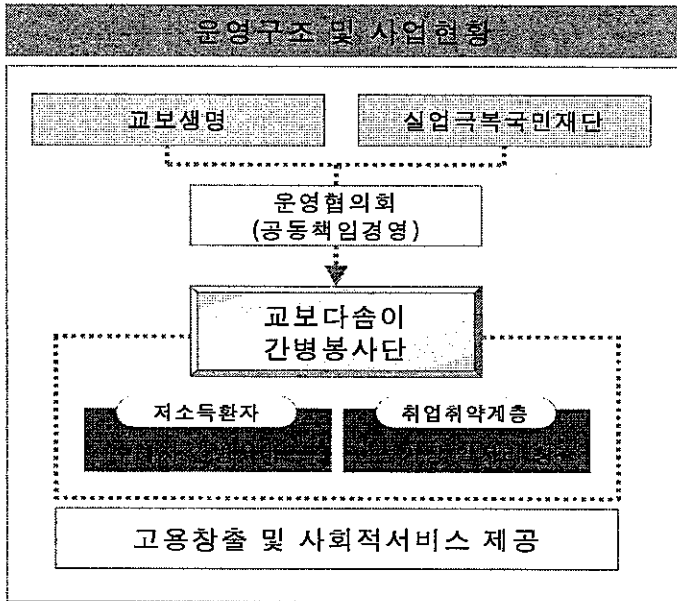
-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는 10명이고 발달장애·중증장애 아동, 저소득층 자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
○ 수혜자로부터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수익 창출

- 장애아동 방과후 지도(월 12.5만원): 초·중·고등부
- 장애아동 통학차량 운영(월 3만원): 초·중·고등부
- 주간보호센터(월 12.5만원): 중·고등부 이상 성인 장애인
- 보호작업장(무료-수익금 대체): 고등부 이상 성인 장애인

< 참 고 >

□ 저소득층 간병 지원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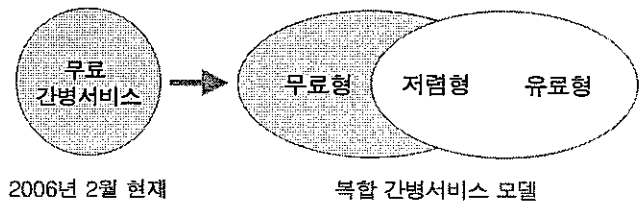


•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적 모델 형성

• 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수익사업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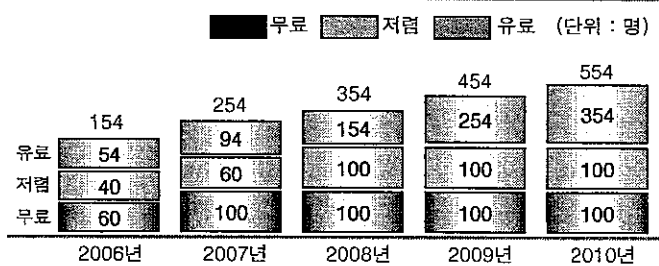
무료 간병봉사단과 연계한 복합 간병서비스 조직

• 간병서비스 제공형태를 무료 간병 서비스에서 저렴한 유료형을 추가하여 '무료+저렴형+유료 간병사업단'으로 운영하고, 매년 100명의 인원을 신규 총원하여 2010년에는 554명의 체제를 구축함



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연계

• 기업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단위사업의 경우 예산규모는 평균 5억~10억으로 일자리 확대의 한계가 존재
→ 정부지원을 통한 대규모 사업단 운영 가능
• 기업, 정부, NGO의 자원을 결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
• 참여자당 2년간의 임금지원 후 유료 간병인으로 활동



간병서비스 전문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전망

•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수익성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
•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재가요양 서비스 개시
• 교보생명의 공익재원과 care서비스 센터 이윤 재투자를 통한 센터 확대

